

광주産 삼성전자 생활가전 국내 브랜드 가치 평정

냉장고·에어컨·세탁기·TV 1위 휩쓸어 광주사업장 프리미엄 가전 기술력 입증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의 주요 생활가전 제품들이 국내 브랜드가치 1위를 휩쓸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생활가전제품의 전진기지인 광주사업장은 품질력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

9일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타에 따르면 1월 브랜드가치 평가가지수(BSTI, Brand Stock Top Index) 분석 결과 삼성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백색가전 부문과 TV 제품이 브랜드가치 1위에 올랐다.

냉장고 부문에서 삼성의 대표 브랜드 지젤은 BSTI 868.65점을 받아 국

내 경쟁 브랜드인 LG전자 디오스(767.14)를 큰 점수 차이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세탁기 부문에서는 삼성 버블샷이 731.42점으로 LG 트롬세탁기(706.58)보다 앞서 1위를 거머쥐었고, 에어컨 부문 역시 삼성 스마트에어컨이 850.12점으로 LG 휘센(835.30)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TV 부문에서도 삼성전자의 UHD(울트라HD) TV가 BSTI 871.26점으로 LG전자 제품(815.77)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스타에 따르면 2008년에는 연간 종합 BSTI 분석 결과 TV와 냉장고는 삼성 브랜드인 파브와 지젤이, 세탁기와 에어컨은 LG 브랜드인 트



1월 브랜드가치 평가서 1위를 휩쓸 삼성전자 광주産 생활가전 제품들. 왼쪽부터 냉장고(T9000), 에어컨(Q9000), 세탁기(W9000).

롬과 휘센이 각각 1위에 오르며 생활가전 시장을 양분했다. 그러나 2012년 연간 종합 BSTI에서 삼성이 에어컨 부문에서 LG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이후 주요 4개 생활가전 부문에서 삼성 브랜드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실제 2012년은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CE 부문장이 취임한 뒤 프리미엄 가전으로 선보인 '9000' 시리즈가 탄성한 해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의 9000시리즈가 국내의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시점이다.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된 T9000(모델명 RF32FMQDBSR)은

지난해 11월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4도어 냉장고 부문 평가에서 전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광주사업장은 국내 생활가전은 물론, 해외공장 라인 가동에 앞서 모든 기술력 및 안정화를 점검하는 첨단 프리미엄 가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며 "협력사 지원센터를 이용해 광주지역 부품 협력사에 품질·기술지도와 삼성의 성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을 강화한 것이 광주사업장을 명품 가전 제조현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BSTI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로 만점은 1000점이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국세청 여수 기름 유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징수 9개월 유예하고 체납처분 연장

광주지방국세청이 여수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선다.

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여수 기름 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현장 수집하는 등 적극적·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현장 접수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양식업·어업, 유통·가공업, 음식·숙박업자로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 세정지원을 한다. 지원 주요내용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부가가치세등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 현재 체납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을 한다. /최재호기자 lion@

금융사고 예방 소홀 은행 제재 강화

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고(高)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제 발병한도는 규제 실익이 없어 폐지되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 사원 복지에 수천억 평평

5년간 3000억 이상 지출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들이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비용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질병에 걸린 직원의 가족에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해주는가 하면 업무와 질병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휴직급을 제공하고 있다. 업무상 사망 시 1억5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종교교 뿐 아니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174억원이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

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 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기업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193억원) 등 순이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했다. 석탄공사는 중학교, 고교,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4 시카고 오토쇼(2014 Chicago Auto Show)'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쏘울 EV'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차 제공>

기아 전기차 '쏘울 EV' 공개...상반기 광주서 생산

올 4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될 전기차 '쏘울 EV'가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4 시카고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 EV'는 81.4kW급 전기모터를 장착, 최대출력 109마력(ps), 최대 토크 29kgf·m의 우수한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12

초 가량이 걸린다. 동급 최고 수준의 셀 에너지 밀도(200 Wh/kg)를 갖춘 27kWh의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148km(국내 복합연비 평가기준 자체 실험결과)까지 주행 가능하며 100kW 충전기로 급속 충전할 경우 25분, 240V 완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5시간 이내가 소요된다. '쏘울 EV'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

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공기 역학적 디자인과 흡음재 등을 적용해 실내 정숙성을 높였으며 2가지 색상이 배합된 쏘울 EV 전용 색상 및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LED 램프 등을 적용해 가솔린 모델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다. 기아차는 '쏘울 EV'를 올해 상반기 중국 내에 출시하고, 3분기 중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11년만에 최고

세계 경기불황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이 주요국의 수입규제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경고등 켜진 대(對) 한국 수입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조사 건수 포함)는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건은 작년 한 해 신규 발동된 것으로 2002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84회)					
당첨번호					2등번호
7	18	30	39	40	41
					36
등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5,033,183,25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8,643,489			32
3	5개 숫자 일치	1,718,984			1,464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972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8,119

원장이 직접 챙기는 기숙학원 - 서울케이스사관학원

내 자식처럼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합격생들이 서울케이스사관을 말합니다.

원장님께서 세 성적은 물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쯤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원장님께 호출을 당했고, 속마음과 고민까지도 관리(?)를 받았습니.

정재훈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합격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해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별 독서대가 배정되기 때문에 자율학습할 때 쾌적하게 학습이 가능하고, 시합장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도 봅니다.

정지산 - 한국고원대학교 수학교육과 합격

원장님이 수능 3주 전에 과목별 출제 예상 내용을 원장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적중도에 놀랐고, 특히 언어 지문 예언에 저는 정말 탄복하고 감격하였습니다.

황두원 - 고려대학교 합격

"원장과 모든 학과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숙식하면서 목표를 쟁취하도록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요령, 공부하는 습관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원장 김항은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사관학교

- ☑ 원장, 그리고 학과 선생님과 학생이 24시간 함께 합니다 !!
- ☑ 토·일요일, 국경일, 추석연휴에도 정상 수업 !!
- ☑ 성공! 오직 공부만! 연간 휴가 단, 9박 10일 !!
- ☑ 국어는 국어만으로, 수학은 수학만으로, 영어는 영어만으로 각 과목별 수준 반편성 실시 !!

재도전! 조기 특강반 | 개강 | 2014년 2월 16일(일), 2014년 3월 1일(토)
 대상 |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 사관학교 지원 예정자
 상담 | 상담실(055.585.5003) www.scoa.co.kr

※ 원장과 학과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기숙합니다!

원장직통 010.9177.4522 상담실 055.585.5003